"남구청, 쓰레기처리시설 유치 보상 약속 뒤집었다"

분노한 대촌 주민들 청장 고발

구청 선거법 저촉 우려에 LED조명사업 지원 중단

대촌발전협, 총 4명 고발 시설 건립 반대 총력 투쟁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광주시 남구 대촌지역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떠안는 조건으로 약속받았던 지원사업을 남구청이 뒤집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영호 남구청장 등 공무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시설건립 보이콧까지 예고했다. 어렵게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상무소각장 대체 시설인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Solid Refuse Fuel)이 또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대촌상생발전협의회는 최 청장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는 또 남구가 애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지원사업(조명시설 교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한창인 SRF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남구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공교롭게도 남구가 대촌동 주민 지원사업의 하나인 LED조명시설 교체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과 맞닿아 있다.

남구는 지난 10월 지역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 SRF시설 반경 2㎞밖에 있는 자연마을 지원 대책의 하나로 주민 2000여세대 조명시설 교체사업(형광등→LED조명)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를 받자 조명시설 교체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5월 해당 사업 추진결정 통보 자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약속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것이다.

LED조명시설 교체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의 하나다. 상무소각장 폐쇄를 앞두고 조속히 대체시설 부지 확보가 절실했던 광주시와 남구청이 SRF 건립을 조건으로 대촌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광주시는 주민 협의 과정에서 조명시설 교체와 함께 해당 시설 사용 종료 시점까지 매년 5억원을 남구청을 통해 지원하고 사업 내용은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같을 리 없지만 남구청과 광주시가 하는 행태를 보면 해도 너무한다. 선거법 저촉이 이유라면 주민에게 약속했을 땐 몰랐고, 사업 추진이 결정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알게 됐단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린 뒤 "검찰, 선관위 고발조치와 별개로 주민 뜻을 모아 시설 건립 반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대촌 자연마을 조명시설 교체 사업이 확정·통보된 이후 선관위로부터 현물 제공에 따른 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지적받은데다, 애초 주민 보상대책 협의 주체였던 광주시마저도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사업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혐오시설 유치 보상책으로 매년 예산 5억원을 들여 주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방침은 남구청과 광주시 모두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SRF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929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 착공해 내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24%대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1일 800t 규모의 생활쓰레기를 선별과 분리과정 등을 거쳐 488t가량의 고형연료가 생산될 전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우리아이 당첨돼야 할텐데… 26일 원아 모집 추첨이 이뤄진 광주시 북구 신용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가 추첨을 하고 있다. 72명을 선발하는데 618명의 지원자가 몰린 추첨장은 입학 시험장을 방불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누리예산 파문에…광주 공립유치원 지원자 몰려

지난해보다 경쟁률 높아

26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신용유치원 강당. 유치원 추첨장은 입학시험장처럼 긴장감이 팽팽했다. 탁구공에 적힌 번호가 크게 불리자 학부모가 환호성을 내질렀다. 다른 학부모들은 부러움 섞인 눈으로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만 기다렸다. 번호가 선택될 때마다 학부모들 사이에는 희비가 갈렸다.

유치원 원아 모집이 시작되면서 공립단설(單設) 유치원에 모집 인원을 훌쩍 넘는 '젊은 엄마'들이 몰려 탁구공 추첨으로 입학 여부를 가리는 진풍경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원아 모집 추첨이 이뤄진 건국유치원(공립단설)의 경우 3~5세 48명을 뽑는데 504명이 몰려들어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6.04대 1)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가 몰린 데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떠넘기기'로 자칫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끊길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젊은 엄마'들이 대거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신용유치원도 지난해(4.19대 1)보다 높은 6.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첨 내내 618명의 부모들은 72명의 선발자에 포함되기만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

진남유치원(4.8대 1), 빛고을유치원(2.36대 1) 등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연출됐다.

광주시교육청 안팎에서는 한 달 교육비가 매우 저렴하고 국가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선생님들로 구성된 점 등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도 한몫을 하면서 유치원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정 거짓말' 감옥 간다

2년간 국가소송사건 전수조사 광주지검, 위증사범 11명 적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간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광주지검 공판부(박영준 부장검사)는 최근 2년간 선고가 이뤄진 국가소송 사건을 전수조사해 위증사범을 11명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전 세무공무원 최모(58)씨와 회계법인 직원 변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사업자 임모(40)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자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이 사업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변씨와 공모해 세무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임씨로부터 113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위증 사실이 드러나 지난 9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임씨의 범죄 사실을 근거로 사무실 압수수색,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최씨와 변씨의 뇌물수수, 위증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학부모에게 위증을 교사한 초등학교 교감도 적발했다. 초등학교 교감 김모(58)씨는 학부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뒤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학부모에게 위증을 강요한 혐의다.

개인사업자인 백모(53)씨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회사가 유상증자에 필요한 주식인수대금을 주주들에게 대여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련원 관장 박모(56)씨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돼 반환 명령을 받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준 부장검사는 "국가소송에서의 위증은 행정작용을 왜곡하고 국가재정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죄질에 향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법 "유두석 장성군수 호별 방문 혐의 재심리 하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65) 장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재심리 대상은 지난해 4월21일 장성군청 1층 주민복지과, 5월29일 2층 재무과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악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시장·점포·다방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는 허용된다.

재판부는 장성군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가능한 장소인지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호별방문 혐의를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트서 담배 상습절도 고교생들

쌍나팔

○…동네 마트 한 곳을 집중 공략해 무려 5차례에 걸쳐 담배를 훔친 고교생 등 10대 5명이 경찰서행.

○…2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1년 A(16)군 등 5명은 지난 8월 27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B(여·51)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담배 3갑을 훔친 것을 비롯한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담배 25갑(11만2500원 상당)을 가지고 도망친 혐의.

○…A군 등은 주인 B씨에게 상품의 위치를 물으며 유인하는 팀과 그사이 진열대에 놓여있던 담배를 몰래 가져가는 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담배를 훔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주인 B씨가 가게 안에 설치된 CCTV를 되돌려보는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나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결국 덜미.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확정 땐 직위 상실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6일 지난해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총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이 선거 당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돈을 쓰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광주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컨설팅 계약을 하고 그 비용 중 수백만원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총장은 총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서 父子 숨진 채 발견…처지 비관 목숨 끊은 듯

26일 오후 12시50분께 여수시의 한 건물 1층 주택 안방에서 A(41)씨와 아들(6)이 숨져 있는 것을 같은 건물 2층의 교회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교회 관계자는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연락해와 집에 가보니 A씨와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아내는 현재 외국 체류 중이다. 방 안에서는 불에 탄 번개탄 6장과 '개인회생 절차로 인해 힘들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소방관을 그만둔 A씨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던 중 처지를 비관해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법률경매 (추천 특급)
〈8층 상가건물 첨단지구〉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연구시설)
(첨단지구 삼성전자 정문 앞)
(토 500평 ,건 904평)
1층 (상가) – 130평
2층~7층 (오피스텔 룸 56개)
(15평,고급형오피스텔)
8층 (사무실,주택)
(매가 → 35억)
임대예상 수익 → 보 3억 , 월 3,000만
분할등기시 대출 25억 가능!! (실투자금 제로)
(향후 60억 가치 있음)
감정가 35억4천 → 최저가 24억8천
010-6834-4800 / 010-6832-9700

근린상가 오피스텔(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융5천) (보1천,월70만) → 매가 1억3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융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융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융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올수리 (융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융2천)(보2백,월32만) → 매가 3천8백만
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1층(40평) (보8백,월80만)(융4천) → 매가 1억5천만
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 매가 3천5백만
⑨ 북주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2칸) 2층~3층 (원룸6개,투룸2개) 4층 (주택) (보4천,월520만) → 매가 6억8천만
⑩ 북구 우산동 7층상가건물매매 (사우나 건물) (보1억2천,월1,020만) → 매가 17억
010-7384-7800

상가 임대 (상무지구)
① 상무지구 (5층) / 90평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융가도로 이면코너
(올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주차 2대 무료 / 학원, 보험사, 사무실, 기타
보증금 2,000만 / 월 130만
② 법원앞 (1층) 사무실 임대 / 22평
(즉시입주가능 , 올리모델링 완비)
버스, 택시승강장 앞 (위치 최고)
보증금 2,000만 / 월 80만
010-6670-9800